

한일 대립의 상호주관적 조건

- 2010년대 초반의 '지위 불일치성'에 착안하여 -

오타니 다케오 (히토쓰바시대학)

1. 서론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왜 2010년대에 격화됐는가. 전후 일관되게 역사 문제로 인한 일시적 대립을 거듭해 온 양국이지만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연기와 3년 반의 장기간에 걸친 양자 정상회담 보류 등 2010년대 초를 고비로 전례 없이 대립이 격화·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¹⁾. 그렇지만 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 표면화한 구조적 요인 내지는 조건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다. 이미 중국의 성장에 따른 전략의 괴리와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 저하, 주요 인물의 세대교체 등 대표적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²⁾ 냉전 이후 계속되어 온 경향에서 벗어나고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견해에서 새로운 고찰을 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10년대 기록적 악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주목해 왜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데에 대한 요인 및 그 메커니즘에 대해 국제관계론(IR) 분야에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분석 개념 '지위(status)'를 단서로 해명하려고 시도했다. 양국은 발전한 선진공업국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동시에 안전보장상의 연계 관계이므로 마찰이 더욱 격화되는 사태는 이 분야의 주류적 이론에 의거하여도 예상하기 어렵고³⁾, 기존 이론의 특이 사례를 대체적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위'를 본질적으로 행위 주체의 정체성에 기인하는 개념으로서 설정했으며 그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도 자기 규정과 타자 규정의 차이, 즉 '지위의 불일치성(status inconsistency)'의 생성·출현이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강경한 대외 행동 선택의 원인이 된다고 한 이론적 틀을 사용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기 가설은 사례 과정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선진국'으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한국에서 형성됨에 따라(다시 말하자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언급에서 나타난 자기 규정의 변용으로 인해) 한국 정부 및 사회는 역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일본 정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존과 다름없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상 타개를 위한 강경 노선 전환으로 크게 방향을 튼 것으로 결론지었다.

- 1) Ji Young Kim and Jeyong Sohn, "Settlement Without Consensus: International Pressure, Domestic Backlash, and the Comfort Women Issue in Japan", *Pacific Affairs*: Volume 90, No. 1, March 2017. Alexandra Sakaki and Junya Nishino, "Japan's South Korea predicament", *International Affairs* 94:4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aku Tamaki, "It takes two to Tango: the difficult Japan South Korea relations as clash of realitie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Vol. 21. 木村幹『歴史認識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千倉書房、2020年)、木宮正史『日韓關係史』(岩波書店、2021年) 등을 참조.
- 2) 木村幹『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歴史教科書・「慰安婦」・ポピュリズム』(ミネルヴァ書房、2014年) Hosup Kim,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Form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in the Post - Cold War Era," *Asian Perspective*, 35, 2011, pp. 119 등을 참조.
- 3) Brad Glosserman and Scott A. Snyder,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富樫あゆみ『日韓安全保障協力の検証——冷戦以後の「脅威」をめぐる力学』(亜紀書房、2017年) 등을 참조.

2. 분석 개념과 틀

2.1 국제 관계에서 의미하는 ‘지위’ 및 ‘불일치성’

앞서 ‘지위’ 개념은 정체성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행위 주체(이하 ‘액터’)의 ‘지위’란 본질적으로 복수 주체에 걸친 주관,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프로세스에 의거해 생성되는 사회구성적 신념이라고 정의한다⁴⁾. 이는 액터의 ‘지위’에 대한 자기 인식의 확립이 타인의 행위와 반응에 의존하는 것이며 분석상으로도 타 액터와의 상호 행위의 전개를 사정권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위’를 둘러싼 액터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특히 그것은 사회 계층상의 자기 인식이며 액터가 가지는 사회 계층상의 자기 위치에 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 ‘지위의 불일치성’에서 대립이 발생한다고 한 기존의 이론적 가설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어떤 액터의 ‘지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다른 사람의 주관과의 부정합이 해당 액터 측에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초래하여 다른 사람의 인식 개변과 상호주관의 확립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한다고 추론되고 있다. 즉 국제관계의 차원에서는 해당 국가의 자기 평가와 국제 공동체로부터 실제로 배당된 지위(이는 해당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과 공업력 등 유형 무형의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불균형이 클수록 대립의 열도에 영향을 주는 등의 여러 연구의 성과를 볼 수 있다⁶⁾.

2.2 분석 틀과 연구 수법

지금까지의 이론적 틀을 한일이라는 양자 관계에 적용할 때 본 논문은 다음의 분석 틀을 적용한다.⁷⁾ 우선 한국 측의 자국 지위 인식을 밝히기 위해 정치 차원에서는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사회 차원에서는 신문 등 주요 언론과 여론에 나타난 인식·언급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 때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라는 점에 유의하여 국제사회라는 타인의 인지,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관과 다국간 조직 가입 동향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형성된 자국의 지위 인식과 상대국 평가의 불일치가 역사 문제라는 구체적 쟁점 속에서 협상 과정을 통해 가시화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역사 문제 재발 이후의 양국 정부간의 상호 행위 전개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행위의 전개를 거쳐 가시화된 불일치성에서 대립 격화에 이르는 과정,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제의 해결 요구를 일본 측이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 측이 강경한 자세로 전환하는 과정, 나아가 한국 측의 강경한 자세에 대한 반발로 일본 측이 대항 자세를 명확화하는 과정에 대해 각각의 국내 정치 및 사회 정세와 정책 결정에 대한 반영에 주목하여 과정 추적을 실시했다.

4) William C. Wohlforth et al., “Moral authority and status in International Relations: Good states and the social dimension of status seek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4, part 3, (Britis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17), pp. 526 - 546등을 참조.

5) Paul K. MacDonald and Joseph M. Parent, “The Status of Status in World Politics,” *World Politics*, 73, no. 2 (April 2021), pp. 363 등을 참조.

6) Jonathan Renshon, “Status Deficits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mmer 2016), pp. 513 - 550를 참조.

7) 본 논문의 분석 틀 및 연구 수법은 각각 Steven Ward, *Status and the Challenge of Rising Pow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mir Lupovici, “Constructivist methods: a plea and manifesto for plu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Britis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9)에 의거한다.

3. 사례 분석-이명박 정부의 한일 관계

3.1 ‘선진국’ 아이덴티티의 정조-국제 사회에서 인지 획득

갈등이 발생하기 직전,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 ‘선진국’화 언급의 대표인 국제적 위상 제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음을 시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보다 더 왕성한 다자 외교를 펼쳤고 그 성과를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의미를 부여해 국내에 알렸다⁸⁾. 구체적으로는 다자조직 가입과 역할 확대이며 G20 의장국 및 유엔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개발원조위원회(DAC) 거출금 증자 등을 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발언이 연설 등을 통해 확산됐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슷한 언급은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선진국’화 언급은 국내 사회에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⁹⁾. 이 시기 국제기구 주요 직위에 한국인 등용도 잇따랐다. 국제사회의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다자조직에서의 한국의 실적 확대는 자국의 지위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지위를 확립하고 국내에서 비교 대상이 돼 온 일본에 대한 계층상의 접근을 당시 함의한 것으로 보인다.

3.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발과 정부간 상호 행위의 전개-‘지위의 불일치’의 가시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이른바 선진국으로서의 자기 규정을 형성하는 가운데 현재 판결을 계기로 재발한 것이 위안부 문제이고,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이후 다음 봄에 걸쳐 다자 및 양자 외교 채널(유엔 대사관 정상회담)과 공개 연설을 통해 5차례가량 일본 정부에 해결책을 거듭 타진해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답변은 한국측의 기대에 어긋나게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일관해 한국 측을 고려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¹⁰⁾.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부당성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과 시민들의 항의 활동을 통해 표명됐고, 시민단체의 주서울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취소로 점차 상황이 심화되었다¹¹⁾.

3.3 일본에 대한 불만 증대와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대립 장기화의 계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2012년 8월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 방문을 감행했다. 방문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 등이 동석한 오찬에서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¹²⁾. 따라서 현재 판결에 따른 위안부 문제 부상이 대립 발생(독도 방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가 보인 문제 대응의 소극적인 모습을 두고 한국 내에서 불만이 축적된 것, 즉 양국 간 상호 행위 전개에 요인이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사실 2011년 10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판결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¹³⁾. 독도 방문 이후 양국 정부는 모두 국내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에 짓눌리는 형태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문제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 갈등의 가속화에 가

8) Kadir Jun Ayhan, “Rethinking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s a Nation Branding Project,” *KOREA OBSERVER*, Vol. 50, No. 1,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pring 2019 를 참조.

9) 예를 들어 「G20誘致した韓国、先進國か、途上國か」 『中央日報』 (2009년9월30일) 등을 참조.

10) 경위는 주로 服部龍二 『外交ドキュメント 歴史認識』 (岩波書店、2015年) 에 근거.

11) 「日本、慰安婦問題に依然として沈黙」 『東亞日報』 (2012년5월15일), 「きしむ日韓關係 外交・經濟停滯の恐れ 韓國大統領が竹島上陸」 『朝日新聞』 (2012년8월12일), 服部, 전술서, 204페이지 참조.

12) 「竹島訪問、動機は慰安婦問題 韓國大統領語る 沈黙化の動きも、海洋基地計畫は中斷」 『朝日新聞』 (2012년8월14일) 참조.

13) 服部, 전술서, 200페이지 참조.

담해 갔다.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내의 반발은 매우 컸고 노다 정권도 대항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마찰이 결과적으로 격화돼 관계가 장기적으로 정체됐다.

4. 결론

대립이 격화된 2012년을 전후로 하여 양국간 수출입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상대국의 통상 파트너로서 위상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아울러 두 정부는 실리 지향이 강하고 대립이 생기기 직전까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협력 관계 심화에 합의해 양호한 관계를 유지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관계가 악화된 것은 과거사 문제의 재발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환경 조건이 이전까지 변화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 자체는 양자 간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현안임에 틀림없지만 역사 문제가 양자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대 조건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 저하 발언에 나타난 대로 한국 측에서 당시 형성되고 있던 위상 제고 인식이 대일 교섭에서 현상 타개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린 반면 일본 측의 문제 대응은 기존 방침과 변화가 없어 이전보다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전례 없는 대립 격화의 배경을 이뤘다. 다시 말해 당시 국제사회의 지위 자기 규정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자세는 역사 문제라는 양국 간 가장 상징적인 구체적 쟁점에서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측의 일관된 자세에서 자국 지위 개선을 상호주관적으로 읽지 못한 것, 즉 '지위 불일치'의 가시화가 갈등 격화에 박차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현재도 진행 중인 한일 역사 마찰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歐文)

- Ayhan, Kadir Jun (2019), "Rethinking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s a Nation Branding Project," *KOREA OBSERVER*, Vol. 50, No. 1,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Glosserman, Brad and Scott A. Snyder (2015),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nshon, Jonathan (2016), "Status Deficits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kaki, Alexandra and Junya Nishino (2018), "Japan's South Korea predicament", *International Affairs* 94:4, Oxford University Press.
- Tamaki, Taku (2020), "It takes two to Tango: the difficult Japan South Korea relations as clash of realitie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hlforth, William C. et al. (2017), "Moral authority and status in International Relations: Good states and the social dimension of status seek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4, part 3, Britis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邦文)

- 木宮正史(2021)『日韓關係史』岩波書店.
- 木村幹(2020)『歴史認識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千倉書房.
- (2014)『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歴史教科書・「慰安婦」・ポピュリズム』ミネルヴァ書房.
- 服部龍二(2015)『外交ドキュメント 歴史認識』岩波書店.

(번역책임자:황우연)